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착공

익산시, 모현동 부지에 내년 7월 준공 9월 개장 목표

생산자·소비자가 공감하는 익산형 로컬푸드 기대

어려운 지역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줄 익산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이 본격화된다.

익산시는 20일 모현동 부지에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로컬푸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지역의 건강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서부권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서부권 직매

장 설치를 검토해왔다. 로컬푸드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로컬푸드 활성화 간담회, 신축부지 확보 등 직매장 추가 설치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이라는 꽤거를 이루어냈다.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해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모현동2가 671번지에 연면적 998.72㎡,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된다. 국비를 포함해 총

30억이 투입됐으며 1층 로컬푸드직매장, 2층 농가레스토링(카페), 3층 사무실과 회의실을 들어선다. 내년 7월 준공해 9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축 부지는 반경 1km내에 17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1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익산 로컬푸드를 주도해 나갈 최적의 입지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로 개장하는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은 음편등별 특화작물을 위주로 특색있는 진열, 판매방식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로컬푸드직매장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고령농, 여성농, 소농등 영세농가들을 새롭게 조직화하여 한후 익산시 푸드플랜 정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하고 농업인과 시민이 행복한 공간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잘사는 지역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주도하는 익산형 로컬푸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시는 로컬푸드직매장을 포함하여 금마·횡동·원에농협 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60억, 2018년 73억, 2019년 78억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관내 노후·탈색 소화전에 대한 도색작업 및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익산소방서, 노후·탈색 소화전 일제정비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관내 노후·탈색 소화전에 대한 도색작업 및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소화전 도색작업은 노후·탈색 소화전을 새롭게 도색해 식별이 용이하게 하고 소화전 외관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 및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도색작업은 이달 말까지 관내 341개소의 지상식·지하식 소화전에 대해 작업 및 보수 등을 실시한다. 또한,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차금지 계도 비

상소화 장치 비품 관리상태 확인, 비

상소화장치 관리·사용에 대한 사용법 및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덧붙여,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사용 가능 여부와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 조치, 소방용수 보조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확인 점검으로 화재 골든타임 확보에 도 주력한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은 불법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차 통행 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슬기로운 가족생활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군산시가 공모했던 2020 군산 슬기로운 가족생활 사진 공모전 8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저출산·함께육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에서 가족과 즐길 수 있는 가정친화적 지역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접수기간 동안 총 28가족 52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자는 소관부서 1차 사전 심사를 거쳐 30개의 작품이 최종심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최종심사는 온라인 시민투표 점수와 전문가(인구정책위원회) 15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진행됐다.

심사결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으로 총 8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5명의 다통이 가족의 모습을 담은 ‘아빠 힘내세요!!!!+’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사랑은 방울방울’, ‘햇살 좋은 어느 가을날’이, 장려상은 ‘우리는 남편’, ‘우리 가족이 한 명 더 생겨요’, ‘출근하고 싶은 아빠’, ‘아빠가 만든 키즈카페’, ‘아들만 잘 나오면 되지 가 각각 선정됐다.

/군산=한경봉 기자

자살률 줄이기 ‘팔 걷었다’

익산시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맞춤형 사례 관리

익산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자살률 감축을 위해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예방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지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복지정책과 음·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자살사고와 자살시도자의 응급위기개입 구축방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살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을 돋剔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장승호 센터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힘들었을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가족 생태체험 성료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공백과 체험활동의 기회가 줄어든 드림스타트 학생들의 청의력 향상을 위해 진행한 ‘가족 생태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방문한 국립생태원은 세계 5대 기후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한눈에 관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날 행사에 참여한 13가정(아동 15명, 부모 13명)은 일일생태체험에 참여하고, 에코리움과 한반도숲 등을 관람하며 다양한 자연생태 체험으로 가족 사귐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군산=한경봉 기자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익산시는 20일 모현동 부지에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공사를 착공했다. 사진은 익산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조감도

익산시, 홀로그램 산업 활성화 나서

6개 기업과 투자 협약 체결

50개 신규일자리 창출 기대

익산시가 홀로그램 산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이끌기 위해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에서 (주)더웰솔루션랩 등 6개 홀로그램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업은 (주)더웰솔루션랩(대표

손원상), 레트로미디어(대표 육광명), (주)와이에이피(대표 유재우), 신신회화공업(주)(대표 김건웅), (주)케이홀로(대표 강병수), (주)필립(대표 김양웅) 등 6개 기업이다. 각각 전자 시장비 제조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LED디스플레이 개발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영상기 제조 및 영상콘텐츠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익산시에 연구소와 사무실 등을 신

설하고 홀로그램 소프트웨어 제작, 스마트미디어, 홀로그램 장치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약 50개의 신규일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며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홀로그램 산업의 선두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날 투자협약에 참석한 박철원 시의회 부의장은 “홀로그램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홀로그램 산업이 ‘세상을 바꾸는 빛’으로 익산의 미래를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장공조, 군산시에 마스크 1만매 기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업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유)군장공조(공동대표 전주환, 김희란)가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하고자 500만원 상당의 마스크(KF-AD) 1만매를 기탁했다고 밝

혔다. 기탁소에 참석한 김희란 대표는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이웃의 온정을 베풀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성품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성품은 전북시회

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저소득 세대 등에게 지원

될 예정이다. /군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